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2014년 제정되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시 마다 시행되는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올해로 4회째 맞아
- 2021년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참여 작가 중 아이사 흑슨과 하오징반 공동수상
- 코로나 팬데믹으로 질병의 문제를 넘어 조명된 인종주의, 젠더, 계급, 정체성, 여성 노동자의 처우 등을 예술의 언어로 전유하고 대중 미디어의 형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점에 의의
- 온라인 라이브 시상식 10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공동수상자에게 각 상금1,500천원과 트로피 수여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3년 만에 개최되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국내외 작가 41명/팀 중에서 아이사 흑슨과 하오징반이 공동수상한다.

○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는 한국 사회에서 현대 미술의 인지도를 높이고 향유 저변을 넓히고자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2014년에 제정된 상으로, 비엔날레 초청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예술적 비전 제시 및 기여를 한 비엔날레 참여 작가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 올 해 네 번째 개최되는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는 심사위원장 안규철(작가 및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장), 심사위원 수잔느 페퍼(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장), 준 엠(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기획·수집·프로그램 디렉터), 응 마(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의 심사로 진행. 일주일간의 사전 검토와 온라인 토론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출품작들의 주제와 형식, 현실을 다루는 태도와 접근방식이 각기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기 쉽지 않았으나, 공동 수상작품이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상자 선정 의견을 모았다.

○ 아이사 흑슨(1986년생, 마닐라에서 활동)의 <수퍼우먼: 돌봄의 제국>(2021)은 대중음악 뮤직비디오와 공연 형식을 차용해 만든 퍼포먼스 비디오

작품이다. 전 세계의 호텔, 바, 카바레에서 공연하는 필리핀 이주노동 뮤지션에 착안해 〈필리핀 수퍼우먼 밴드〉는 그 활동 자체로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꼬집고 있다. 밴드는 그동안 사랑을 구하는 헌신적인 여성의 노랫말을 가진 팝송 〈수퍼우먼〉(1989)의 가사를 비틀어 비판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뮤직 비디오와 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해왔다.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으로 만든 이번 신작은 팬데믹 시대에 의로서비스업계 종사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기본적인 처우는 좌절되는 필리핀의 현실을 다룬다. 한국의 케이팝에서 영감을 받아 매시업한 음원, 아이돌의 안무와 의상을 참조한 뮤직비디오 연출은 케이팝이라는 형식을 실험적으로 확장하였다.

○ **하오징반**(1985년생, 베이징에서 활동)의 〈나도 이해해...〉(2021)는 팬데믹 상황으로 표면화된 인종주의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시위에서 타자들 간의 공감과 연대라는 정치적 이상의 양면성을 섬세한 내러티브로 서술한 에세이 필름이다. 작가는 그동안 다큐멘터리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연출한 시나리오와 아카이브, 파운드 푸티지, 인터뷰를 엮어 자신의 영상 언어를 구축해왔다.

○ 이번 작품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인종주의를 겪어 온 시민들이 한 자리에서 분노하고 갈등하는 모습, 과거의 인권 투쟁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의 역할을 언급하는 니나 시몬의 인터뷰, 현재에도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밥 딜런의 음악과 자신의 내러티브를 병치하여, 세대 간의 같고도 다른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질문한다.

□ 안규철 심사위원장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팬데믹 시대의 암울한 현실에서 ‘탈주와 도피’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주제, 형식, 접근방식과 현실을 다루는 태도가 각기 다르지만 하나같이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다. 두 분의 수상작가에게 축하를 드리며, 모든 참여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의 풍경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언급하며,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는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11월 21일까지 계속되는 비엔날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온라인 시상식은 10월 18일 오후 2시 부터 서울시립미술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oulMuseumofArt>)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붙임 : 1.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수상작가 및 작품소개
2. 작품관련 이미지

1. 수상작가 및 작품소개

■ 공동수상자

□ 작가명: 아이사 욱슨 Eisa Jocson
(1986년 마닐라 출생, 마닐라에서 활동)



아이사 욱슨은 마닐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퍼러리 안무가이자 미술작가로 다양한 젠더와 아이덴티티, 그리고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춤을 통해 몸이 재현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욱슨의 작업은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비추어 노동이나 사회이동성, 유혹의 역동성과 같은 몸 정치학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한다. 취리히 취르허테아터 슈펙타켈(2012, 2013, 2015, 2017), 탄츠 임 아우구스트(2013, 2015), 아시아 퍼포밍 아트 트리엔날레(2017), 독일 탄츠플랫폼(2018) 등 세계 유수의 공연 예술제에 참여했다. 2014년 필리핀 대학의 조지 비 바르가스 미술관 및 필리피아나 리서치 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상하이 락번드 미술관의 《RAM HIGHLIGHT 2018: Is It My Body?》(2018), 샤르자비엔날레의 《Leaving the Echo Chamber》(2019), 홍콩 타이쿤 컨템퍼러리의 《My Body Holds Its Shape》(2020) 등의 국제 전시에 참여했다. 2018년 필리핀문화원의 '13인의 작가'에 선정되었고, 2019년 휴고 보스 아시아 아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https://eisajocson.wordpress.com>

□ 작품정보: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뮤직비디오와 설치, 컬러, 사운드, 12분 17초, 가변 크기. 아이사 욱슨과 버니 카닥, 캐서린 고, 테레사 보로조, 프란체스카 카사우아이(aka 필리핀 슈퍼밴드). 촬영 및 편집: 브랜든 렐루시오. 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아이사 욱슨은 전세계의 호텔, 바, 카바레에서 공연하는 필리핀 이주노동 뮤지션에 영향을 받아 2019년 <필리핀 슈퍼우먼 밴드>를 결성했다. 사랑을 구하는 헌신적인 여성 화자를 내세운 팝송 <슈퍼우먼>(1989)의 가사를 여러 언어로 개사해 부르면서, 뮤직비디오와 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그를 제시한다. 필리핀의 뮤지션 산업과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한편,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야'라고 노래하는 원곡의 맥락을 비틀어 국가주도의 노동자 수출 현실과 서구의 문화를 대리하는 식민주의적 상황을 꼬집는다. 신작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은 팬데믹 시대에 의료서비스업계 종사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기본적인 처우는 좌절되는 필리핀의 현실을 다룬다.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2019)에서 영감을 받아 매시업한 음원과, 아이들의 안무와 의상을 참조한 뮤직비디오 연출은 케이팝이라는 형식을 실험적으로 확장한다.

■ 공동수상자

□ 작가명: 하오징반 Hao Jingban
(1985년, 타이위안 출생, 베이징에서 활동)



하오징반은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다큐멘터리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연출한 시나리오화 아카이브, 파운드 푸티지, 인터뷰를 엮고, 이를 통해 대중의 사회적, 문화적 운동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킨다. 2010년 런던대학교 영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베이징 올렌스 현대미술센터(2016), 시안 OCT 컨템포러리 아트 터미널(2019), 마타데로 마드리드(2020)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제11회 상하이비엔날레(2016), 제14회 리옹비엔날레(2017), 제1회 프론트 인터내셔널: 클럽랜드 컨템포러리 아트 트리엔날레(2018) 등의 국제 전시에 참여했다. 2017년 제11회 어워드 오브 아트 차이나에서 올해의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작품정보: <나도 이해해...>, 2021, HD 비디오, 컬러와 흑백, 사운드, 21분 / <나도 이해해...>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의 상황이 지속되고,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시위가 미국에서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베를린에서 체류하던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서술하는 영상 작업이다. 인종차별적 상황을 비롯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개인들이 보이는 분노와 갈등의 양상을 관찰하면서 시작하는 작가의 내레이션은 나와 다른 입장을 지닌 타인과 연결되려는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노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민한다. 영상에는 베를린과 몇몇 도시의 시위 장면 외에도 가수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니나 시몬의 인터뷰 클립과 60년대 반전운동과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를 불렀던 음악가 밥 딜런의 노래가 등장한다. 작가는 과거의 투쟁과 현재의 시민운동을 병치하면서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에서 차이와 공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섬세하게 살핀다.

2. 작품관련 이미지

이미지	파일명	캡션
	SeMA-HANA 2021_1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포스터, 2021. 그래픽 디자인: 신신
	SeMA-HANA 2021_2	아이사 후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뮤직 비디오와 설치, 컬러, 사운드, 12분 17초,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 치전경. 촬영: 홍철기, 글림워커픽처스
	SeMA-HANA 2021_3	아이사 후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뮤직 비디오와 설치, 컬러, 사운드, 12분 17초, 가변 크기. 아이사 후슨과 버니 카닥, 캐서린 고, 테레사 바로조, 프란체스카 카사우아이(aka 필리핀 슈퍼우먼 밴드). 촬영 및 편집: 브랜든 렐루시오. 작가 제공.
	SeMA-HANA 2021_4	하오징반, <나도 이해해...>, 2021, HD 비디오, 21분.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전 경. 촬영: 홍철기, 글림워커픽처스
	SeMA-HANA 2021_5	하오징반, <나도 이해해...>, 2021, HD 비디오, 컬러와 흑백, 사운드, 21분. 작가와 홍콩 블라인 드스팟 갤러리 제공.

기본 정보

- 주 최 : 서울시립미술관
- 담 당 자 : 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
(nakwonjin@seoul.go.kr / 02-2124-8975)
송주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JuyeonS.mediacity@gmail.com / 02-2124-8896)
- 홍보문의 : 교육홍보과장 봉만권(go1107@seoul.go.kr/ 02-2124-8912)
주무관 정지혜(jjh0324@seoul.go.kr / 02-2124-8917)

관련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http://sema.webhard.co.kr>)
- 로그인(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폴더)